

이화여성신학소식



발행인 : 백은미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120-750)

전화 : 3277-3278~9 / 팩스 : 312-2062 / http://home.ewha.ac.kr/eiwt / E-mail: E600067@ewha.ac.kr

권두언

기여하는 삶, 기여가 되는 삶

손운산

기독교학과 교수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Pay It Forward)”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실천하려 했던 한 중학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중학교 1학년 사회과목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천하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11살인 트레버는 Pay It Forward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것은 한 명의 사람이 세 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들 각자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갚는 것(pay it back)이 아니라 다른 세 명에게 도움을 주는(pay it forward) 프로젝트이다. 이런 식으로 실천하면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데 몇 단계가 필요할까? 1단계에서 3명, 그 3명이 다시 3명에게 도움을 주는 2단계에서 9명, 3단계에서 27명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10단계에서 59,049명, 20단계에서 약 34억 명, 21단계에서 약 100억 명 이상이 된다. 세계 인구를 70-80억 명으로 잡는다면 20단계와 21단계 사이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 프로젝트가 실천될 수 있다. 참으로 단순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실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트레버의 도움을 받았던 한 노숙자는 계속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았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트레버의 부모도 달라지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트레버는 폭력에 시달리던 한 친구를 돕다가 살해당했다. 그의 프로젝트도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애도했고, 그가 살던 곳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사람의 성숙성은 높은 자존감과 효율적인 일 처리 능력에서 드러난다. 중년기를 지난 사람의 성숙성은 타인과 세상에 대한 배려 그리고 타인과 사회를 위한 기여를 포함한다. 자신만 배려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권리만 주장한다면 아직도 성숙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중년기 이후의 삶의 과제는 기여, 나눔, 혹은 pay it forward이다. 우리는 지난 일 년 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트레버의 프로젝트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금년이 가기 전에 pay it forward하자. 이제 권리 주장이나 선언 대신 기여하는 삶 혹은 기여가 되는 삶의 방법을 찾고 실천하자. 그러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 질 것이다.

서 평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 엮음,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2

열린 여성주의적 성서해석을 향하여

장 양 미 (기독교학과 박사수로, 신약학)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이화여성신학연구소에서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신약 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미국에서 1960-7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여성주의 운동과 궤를 같이하여 발전한 여성주의 신학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레티 러셀(Letty Russel)과 같은 걸출한 여성신학자들이 여성주의적 성서 읽기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래, 반세기가 채 못 되어 여성주의적 연구는 현대 성서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될 만큼 꽃을 피웠다. 그리고 그 정점에 Women's Bible Commentary가 있다.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은 바로 이 책의 번역서이다. 제1세계에서 제3세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은 인종·계급·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그 출발점이 남성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의 토대가 형성되어 있

다. 따라서 약 20년 전에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여성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통찰을 주리라 생각한다.

여성이 저술한 성서 관련 서적과 논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은 성서 각 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서연구의 성과를 모아 성서를 읽는 보다 큰 여성공동체와 그 열매를 나누기 위해 시작된 최초의 포괄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게다가 다원주의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개신교 여성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 여성은 물론, 신학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 필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한층 깊고 넓은 여성주의적 시야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녀차별적이라고 알려진 성서 본문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옹호하고자 하는 변증적 태도에서부터 우리 여성들도 불편할 만큼 비판적 태도에 이르기까지 성서에 대한 실로 다양한 해석을 보고

있노라면, 교회의 틀에 박힌 성서해석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는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서 본문 앞에서, 성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데 성서가 이용되어 온 역사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자신이 여성임을 자각하면서 성서를 읽을 때 제기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여성

스스로 해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은 완결된 주석서가 아니다. 여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질문과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 여성들에게 하나의 훌륭한 모델일 뿐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각자'의 질문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말한다. 이 가을, 이 책과 함께 자기만의 성서 읽기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이 갖는 차별성은 고대와 현대의 종교적·문화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다양한 경험을 창으로 삼아 성서를 읽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당시 여성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공동체에서, 또는 이상적이라고 꿈꿨던 공동체에서 한 경험과 관련해서 성서 저자들이 남긴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성서 저자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국제학술강연회 참관기 I

Theodore W. Jennings, Jr.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교수)의

“바울의 구원의 정치학” 강연을 듣고

문 한 나 (기독교학과 석사수료, 기독교윤리학)

역사의 많은 비극적 순간들은 정치와 종교의 비틀린 관계가 지닌 파괴적 힘을 증언해준다.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가 정치를 정당화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위협하고 와해시켜왔는지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치와 종교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성찰이 요구되는 것 같다.

오랫동안 바울의 구원사상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론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해석 또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시키는 역기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제닝스 교수는 바울의 구원사상을 정치적 차원에서 조망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는 기독교가 출현했던 그레코-로마 세계에서 ‘구원’이란 사회적 유기체를 파괴시키는 분쟁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였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죽음으로 시작된 오랜 내란을 종식시켰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내부의 분열은 공동체의 존속에 가장 큰 위협거리가 된다. 로마 역시 오랜 내란으로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했다. 그런 상황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

여 내란을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을 중단하고 사회제도를 복구시킴으로써 로마세계에 안정을 가져오자 사람들은 그를 soter, 즉 구세주로 추앙했다. 이렇게 당시 구세주 혹은 구원이란 사회정치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분열의 극복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제닝스는 바울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에클레시아’라는 작은 메시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이 공동체는 모든 차별과 구별을 폐지한 평등 공동체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차별과 배제의 원리로 운영되는 일반 사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계급적인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 제닝스는 바울의 편지들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적 구원이라는 주제가 이러한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고 강조한다. 당시 사회에서 구원은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적인 개념이었고, 바울의 사역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화합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구원론은 정치적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바울의 활동은 공동체 내적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메시아적 공동체들 사이의 연대, 더 나아가 메시아적 공동체들과 외부 사회 사이의 평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제닝스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공동체 내부의 불화를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공동체 내의 분열이 조금도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식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십자가 성찰이 공동체의 분열과 싸우는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나 빌립 보서의 찬가가 공동체의 하나 됨을 위한 권면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바울은 서로 다른 메시아 공동체들 사이의 연대를 이루려 애썼다. 잘 알려졌듯이 바울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메시아가 우리를 받아들였으므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제닝스는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의 연대라는 측면을 바울 정치학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먹이고 축복함으로써 메시아적 공동체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외부 사회와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종말론적 개념이다. 이는 구원이란 결코 인간 편에서 이룰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이라 규정한 것은 인간이란 무엇 무엇이 선하고 정의로운지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해는 인간이란 선악을 알지 못한다고 보는 기독교의 관점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종말론적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계로 우리의 삶과 실천을 이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원의 정치적인 지평이 펼쳐지게 된다.

바울이 말한 구원이 사회적 분열의 극복과 화합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아우구스투스에게 돌려졌던 구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구원이 힘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바울은 자기 보존과 자기 확장의 욕망을 버림으로써 하나 됨을 이루려 했다. 이 둘은 비슷하지 않고 도리어 대립된다. 바울의 구원의 정치학은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치와 관계하려면 후자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기독교가 정치와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자기 힘의 확대를 이루는 '구원'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포토앨범 I ◆



2012년 3월 21일 강연의 제닝스 교수



제임스 교수와 통역의 윤소정 박사



소개 말씀의 박경미 교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의 이윤경 교수



강연에 대해 논평하는 서광선 교수



청강 중인 기독교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

국제학술강연회 참관기 II

Karen L. King(Harvard Divinity School 교수)의

“정치비판으로서의 젠더 쟁점” 강연을 듣고

송진순 (기독교학과 박사수료, 신약학)

신록이 진하게 우거진 지난 6월, 이화여성신학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강연회에서 하버드신학 대학의 카렌 킹(Karen L. King)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카렌 킹은 초대교회사와 영지주의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여성신학자로서 고대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 논쟁 그리고 젠더 담론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몇 해 전 영지주의에 관해 공부하면서 그녀의 책(*What is Gnosticism?*, *The Gospel of Mary of Magdala*)을 읽었던 터라 이번 강연이 더욱 반가웠다.

카렌 킹이 전해준 “정치비판으로서 젠더쟁점 (Gender Contestation as Political Critique)”이라는 제목의 강연은 고대 기독교 문헌에서 젠더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었다. 논의에 앞서 다시금 상기해야 할 점은 초대 기독교는 주후 1-3세기 로마 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정치적 질서 속에서 유대교와 헬레니즘 세계의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그렇듯, 고대 세계에서 ‘종교’는 개인과 사회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행과 방식으로 형성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의 형태와 얽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종교와 성/젠더 담론과의 만남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할 때, 초대 기독교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로마 사회의 성/젠더 담론과 실천을 다중적으로 수용 또는 변형하였다. 그 결과 의도적이었던 아니건 간에 사회정치적인 비판을 함의하였다.

카렌 킹은 이와 같은 논의의 근거로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수행의 실천 담론을 언급했다. 다시 말해 카렌 킹은 초대 기독교 문헌에서 젠더가 편성되고 수행되는 방식을 분석하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당시 널리 퍼진 젠더 개념을 어떻게 변형하고 도전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 위의 가능성을 세우는 작업을 환상이라고 했을 때, 환상 즉 신화로 볼 수 있는 초대 기독교 문헌에 나타난 대안적 세계는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것인지를 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영지주의 문서로 알려진 나그함마디의 문서들과 로마 부인의 순교이야기를 실례로 들고 있다.

먼저 2세기에 씌어진 『마리아복음』은 인간세계에서 구원은 자신의 본질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임을 알고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로 나타난다. 이때 하나님은 지고의 선(The Good)과 같이 비(非)젠더적인 언어로 표현되며, 이 세상의 성/젠더의 구별과 사회정치적인 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설 자리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마리아복음』은 메시지의 전령이자 진정한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차별적인 해석과 함께 젠더 담론을 신학적인 상상력과 교차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의와 폭력을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예는 3세기 초 카르타고에서 일어난 『페르페투아의 순교』 이야기이다.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정숙한 여인이자 어머니로 나타나지만 반면, 순교 전날 환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불의한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는 남성 격투사로 변모한다. 환상의 격전에서 그녀가 보여준 남성다운 용기와 대담함 그리고 인내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로 대변되는 제국의 통치를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남성적 성 역할의 가치들은 하나님나라라는 우월한 사회 질서를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페르페투아의 순교』에서는 당시 고정된 젠더 역할을 변용하여 전략적으로 젠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적 사회질서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요한의 비밀계시』는 2세기 중반 문서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세계의 기원, 인간의 구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남성이자 여성의 이미지로, 아담과 이브는 평등하게 서로 돕는 자로 그려짐으로서 일견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남성중심적인 신학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요한의 비밀계시』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신적 세계를 드러내 놓고 지지함으로써 그 모방물인 지상세계에서도 이러한 이상(理想)적 세계가 온전하게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지상 세계의 타락은 이상적인 가부장제의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과 불의로 가득한 통치자들에 의한 것이다. 인간의 고통과 불의 그리고 오만은 오히려 이상적으로 보이는 가부장적 신적세계와의 비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문서는 성/젠더 담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점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성/젠더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서 당대의 사회 정치적 비판에 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증언』은 고대의 성/젠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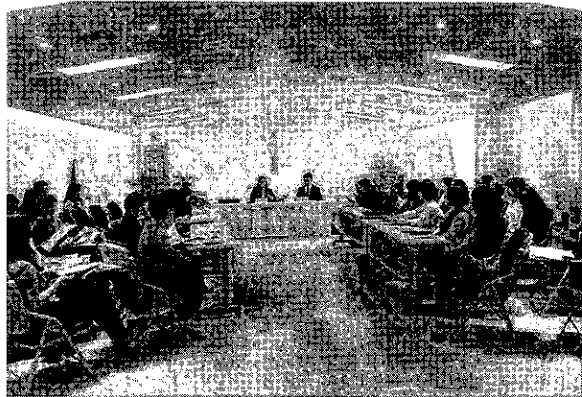
질서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육체적인 재생산과 이에 동반하는 질병, 죽음, 맘몬 심지어 순교자들의 고문과 죽음까지도 가차없이 반대한다. 『진리의 증언』은 남성의 동정(童貞)을 완벽한 삶으로 보여주면서 여성과 육욕을 모두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로써 모든 인간의 고통과 불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정적주의적 윤리는 기독교의 금욕주의와 유사점을 갖고 있었으며 타락한 세상을 떠난 청빈과 독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카렌 킹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초대 기독교 문서들을 통해 종교와 젠더 담론 또는 종교와 정치 담론이 교차하면서 내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물론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사회 정치적인 불평등과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그들은 기독교의 정체성(들)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복음을 전파하되 외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타자와 경계를 세우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공동체와 교회의 삶의 양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기독교인들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성/젠더 담론은 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예전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구현되는 기독교적 관행 속에서 새롭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다. 그리고 신적 진리를 소유한 기독교인들은 부자중에 정치적인 도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불의한 권력관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인간의 변형을 상상했던 그들의 강렬하고 다채로운 유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러한 유산을 이 시대의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현실에서 비판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 포토앨범 II ◆



2012년 6월 8일 강연의 카렌 킹 교수



강연 중 모습



청강 중인 기독교학과, 신학대학원학생들

에세이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고 경 미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8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값이 달라진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의 육아에 전념하기를 10년
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다
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다. 이대로 전업주부로 남
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새로운 도
전을 할 것인가? 우연한 기회에 결혼 전에 배웠던
수화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국가공인 수화
통역사에 도전하게 되었고, 2년여의 준비 끝에 합
격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집안에서만 지내는 사
이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열등감으로 뒤섞여있던
나의 가슴 속에서 바깥세상을 향해 다시 한 번 도
전해 보고 싶은 용기가 싹텄다. 수화를 통해 청각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들의 마음
을 읽어주고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상담전문수
화통역사가 되고 싶은 열정이 일기 시작했다. 마지
막 연에 이후 처음으로 다시 뛰게 된 내 심장은 멈
출 줄을 몰랐고 꿈은 커져만 갔다. 처음에는 “지금
그 나이에 애나 잘 키우지...”하며 반대하던 사람
들도 있었지만, 내 안의 열정을 보고 상담공부를
권유한 집사님의 격려 덕분에 이화여자대학교 목

회상담아카데미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만남은 하
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셨음을 다
시 한 번 깨달았다.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과 학
우들과 함께 하면서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
니었구나!’라는 생각에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도
전을 받았다. 이제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
점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세상에서 나처럼 못난
사람은 또 없을 거야’라고만 생각하던 작디작은
나에게 목회상담아카데미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움푹을 수 있는 거름이자 내 안에 내재된 힘을 발
견할 수 있게 해 준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다. 그런 미담
은 어디 다른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우리 모
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2012년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봄학기 Activity



2012년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중강예배



교내 소식

■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국제석학초청강연
주 제: 여성신학 석학과의 대화
일 사: 2012년 9월 24일(월) 오후 3시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이화신학공동체 콜로키움
일 사: 10월 말 경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가을학기
일 사: 2012년 9월-12월 매주 월요일
장 소: 대학교회 106호
문 약: <http://www.epcc.or.kr>

■ 기독교학과

- 기독교학과 개강예배
일 사: 2012년 9월 4(화) 오후 5시 30분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신학대학원

- 신학대학원 개강예배
일 사: 2012년 9월 11(화) 오후 5시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신학대학원 공개강좌
일 사: 2012년 10월 16일(화) 오후 2시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2013년 신학대학원 입시요강
원서교부: 2012년 11월 5일-23일
원서모집: 2012년 11월 14일-23일
전 형 알: 2012년 12월 1일(토)

■ 교수 동정

- 손운산 교수
- 보직 발령: 신학대학원장
- 백은미 교수
- 보직 발령: 여성신학연구소장



교외 소식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2013년 WCC 부산 총회와 관련 여신협의 역사, 되돌아보고 새로 쓰기” 연구작업반 운영
일 사: 2012년 9월 14일(금)(이후 매월)
장 소: 여신협 사무실(영등포 여성미래센터)
문 약: 여신협 사무국(365-4276)

■ 한국여성신학회

- 국제석학초청강연
일 사: 2012년 9월 24일(월) 오후 3시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Feminist Theology News

Table of Contents

■ Foreword	Woonsan Sohn	1
■ Book Review		
Women's Bible Commentary	Yang Mi Chang	2
■ Lecture Review I		
Pauline Politics of Salvation	Hannah Moon	4
■ Photos I		6
■ Lecture Review II		
Gender Contestation as Political Critique: Four Cases from Ancient Christianity	Jin Soon Song	7
■ Photos II		9
■ Essay		
Last Semester at Ewha Pastoral Counseling Center	Kyung Mi Go	10
■ News		11



Ewha Institute for Women's Theological Studies

52, Ewhayeodae-gil Seodaemun-ku, Seoul, Korea 120-750

Tel. 82-2-3277-3278 Fax. 82-2-312-2062

Homepage: <http://home.ewha.ac.kr/eiwt>

E-mail: E600067@ewha.ac.kr